20 대학내일

No.859 2018.8.20~2018.8.26
ISSN 2465-7883

SPECIAL
개강이 왜 싫어요?
구남친 복학해서, 화석이라서…
유형별 싫어증에 경험자의 처방을!

+ 주간 가심비
당신을 행복하게 만든 이주의 소비는?

20'S BUT
나는 여권이 없는 20대입니다

+ 취준생 대신 물어 드립니다
대학내일 다니는 썰.ssul

+ 수강신청 망한 김에 상상해본다
교수님이 유튜버라면?

+ 사공 많은 고민 상담소
취준생인 저, 연라밸이 안 맞아요

20대 여러분~ 세상 불편한 것들을 신나게 외쳐주세요~

20대 아무 불만 대잔치

잔치개요

불만 제보 바로가기

누가_ 전국 20대라면 누구나

언제_ 8.14(화) ~ 9.14(금) 한 달간

어디서_ bit.ly/20대_아불대

무엇을_ 대한민국 20대로 살면서 겪은 불편한 모든 것을

어떻게_ 접수 양식에 맞추어 제출

왜_ 20대 행복이 10년 후 대한민국의 행복이니까

불만 제보
20대 여러분이 겪은 불편·불만 제보
8~9월

대표 불만 선정
20대 여러분의 투표로 대표 불만 Top10 선정
9~10월

대표 불만 공개 취재
20대 여러분이 직접 대표 불만 Top10에 대해 취재 후 콘텐츠(글 기사, 영상) 제작해 응모
10~11월

대표 불만 심층 연구
우수 콘텐츠 선정 및 20대연구소 연구·분석 진행
11~12월

2019 대한민국 20대 불만 리포트 발간
최종결과로 이슈페이퍼 제작 및 청와대 국민청원 공식 제안
12월~19년 1월

20대 아불대 참여 이벤트

❶ 불만을 제보하면
불만을 제보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200분께 스타벅스 커피 제공 (9월 중 기프티콘 발송 예정)

❷ 대표 불만을 투표하면
대표 불만 Top10 투표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100분께 스타벅스 커피 제공 (10월 중 기프티콘 발송 예정)

❸ 대표 불만을 취재하면
대표 불만 Top10 취재 우수 응모작에 선정된 10분께는 **취재비 지급**(50만 원, 11월 중 지급 예정) 및 **국민일보 기사 제작**과 **대학내일20대연구소 리포트 발간** 공동 참여 기회 제공

국민일보 '취재대행소 왱'에서 여러분의 취재를 돕고,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 제대로 분석하겠습니다.

국민일보 × 대학내일 대학내일 20대연구소

EDITOR
서재경 suhjk@univ.me

PHOTOGRAPHER
안규림

STYLIST
이원미, 주진아

HAIR & MAKEUP
윤성원

PARK YOOLIM
박유림
KAIST 새내기과정학부 18

01

'흰 눈이 기쁨 되는 날~'로 시작하는 추억의 노래! <러브송>을 부른 '7공주'의 멤버라고요?

지난 3월, JTBC <슈가맨>을 통해 같이 '7공주'로 활동했던 언니들을 오랜만에 만날 수 있었어요! 다시 모일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 했는데 정말 반갑더라고요. 신기했던 건 안무 연습을 할 때, 마치 어제 맞춰본 것처럼 모두가 동선과 동작을 기억하고 있었단 거예요.(웃음) 방송 끝나고 다시 모여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답니다.

02

'7공주' 멤버였다는 사실을 알고 학교 동기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는 저를 연예인이라고 부르면서 신기해하더라고요.(웃음) 하루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인터넷 기사를 읽으며 제 얘기 하는 걸 들은 적도 있어요. 여자 친구들은 유치원 다닐 때 재롱잔치에서 7공주 노래를 불러본 적 있다며 반가워해줬죠. 물론 지금은 신기해한다기보다 연예인이라고 부르면서 저를 막 놀리지만요.(웃음)

03

입학하고 첫 방학을 맞았죠. 여름방학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카잔의 기적'이었던 대한민국 VS 독일 경기를 현장에서 직접 봤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함께 해외 축구 경기를 보던 친구들과 같이 러시아 월드컵을 보러 갔었거든요. 경기 관람 전에 친구들과 '월드컵은 SON 바닥 안'이라고 적힌 피켓을 만들어 갔는데, 그 덕에 카메라에도 잡혔답니다.(웃음) 방송에 나오자마자 가족, 친구, 심지어 고등학교 선생님들로부터 메시지를 200개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04

곧 개강이에요! 개강을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유림님은 어떤가요?

계획한 대로 열심히 지내면 큰 문제 없이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지만, 축구 보느라 낮과 밤이 뒤바뀐 건 조금 걱정돼요.(웃음) 주로 새벽 시간대에 열리는 EPL과 라리가 경기를 챙겨 보느라 방학 동안 올빼미처럼 살았거든요. 최근에는 블로그를 열어 축구 칼럼도 쓰기 시작했어요. 축구 명문 클럽 구장을 모두 돌아보는 여행을 하는 것이 제 버킷 리스트에요!

05

요즘 마음을 가장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요?

'위너'요! 위너의 노래 가사엔 청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공감이 많이 돼요. 또 신나는 노래가 많아서 듣고 있으면 행복해지고요. 위너 노래를 알람으로 설정해놓았더니 아침마다 기분 좋게 일어나게 돼요. 곧 있을 콘서트 티켓 예매도 성공해서 무척 설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웃음)

06

새내기에게 물어보긴 이른 질문이지만, 졸업 후엔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수학과 과학을 어렵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분들이 이공계 분야를 어렵다기보다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공계 분야의 재미있는 소식이나 지식을 전하는 아나운서나 기자가 되고 싶어요! 제가 공부한 분야가 사람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11
OUTCAMPUS
갑아띠가 일상인 너를 위해
추천하는 활동 BEST 4

12
주간가심비
결국 남는 건 사진 뿐, 그랩픽

14
20'S VOICE
누구를 위한 팀플인가

CONTENTS

No.859 2018.8.20~2018.8.26

SPECIAL

15
20'S LIFE
내 자취방에
단 하나의 요정을 키울 수 있다면?

16
20'S ARTWORK
일러스트레이터 강한

18
CULTURE LETTER
PICTURE BOOK『고사리 가방』

20
20'S BUT
나는 여권이 없는 20대 입니다

28
CAMPUS
교수님이 유튜버라면?

30
WORK
알바 생활 눈치게임
카밍시그널 (feat. 알바 사장님)

32
LIVING POINT
자취생인데 건강보험료를 다 내고 있다면?

34
JOB SSUL
대학내일 다니는 썰

36
GO_MIN
연라밸이 안 맞아요

38
THINK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

23

개강 왜 싫어요?

학교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더부룩해진다고요? 네, '개강 증후군'에 걸리셨습니다. 대학생 2명 중 1명이 앓고 있다는 '개강 싫어증'! 여덟 가지 유형별 고민에 실제 경험자들이 응답했습니다. 어차피 할 개강이라면 경험자들의 처방 받고, 마음이라도 편히 가세요

CONTENTS TEAM

팀장 홍승우 sseung@univ.me

매거진

파트장 김신지 summer@univ.me
에디터 김혜원 hyewon@univ.me
권혜은 hyen@univ.me
서재경 suhjk@univ.me
교정교열 차은선
디자인 팀장 김해정 kiko@univ.me
디자이너 남미가 miga@univ.me

디지털

파트장 조웅재 woongja1@univ.me
에디터 백수빈 bin@univ.me
강민상 ninsan@univ.me
김상구 nine@univ.me
디자인 디렉터 윤희선 yoon@univ.me
디자이너 김지현 uujuinn@univ.me
이승은 lidy@univ.me
김은미 mongmiggu@univ.me
조범식 booomsik@univ.me

영상

파트장 김효은 hihyo@univ.me
에디터 김슬 dew@univ.me
김준용 dragon@univ.me
배다솜 sombang@univ.me
이지애 ja.lee@univ.me

브랜드 저널리즘

파트장 김초롱 rong@univ.me
책임에디터 주태환 joo@univ.me
박정욱 wook@univ.me
에디터 조아라 ahrajo@univ.me
김수현 soo@univ.me
유희수 hsyu@univ.me
정우미 woomi@univ.me
노치원 kingofamonkey@univ.me

STAFF

발행·편집 김영훈 batcong@univ.me 공동 대표 유영기 김영훈 부대표 이태영 이사 김창배 고문 박재항

마케팅커뮤니케이션 1본부

본부장 김부진

마케팅커뮤니케이션 1팀

팀장 조인천 책임매니저 신예지 이혜민 김지영
매니저 손유리 조하니 권소영 사원 안예지 조지은 최현정

마케팅커뮤니케이션 2팀

팀장 김우준 파트장 김영현 이재우
책임매니저 이지연 유호정 홍보미 육혜진 이인재
수석에디터 김민정 매니저 백소연 한은지 사원 김준호

마케팅커뮤니케이션 3팀

팀장 안길상 파트장 조소라
책임매니저 김동하 양현정 홍보람 매니저 한희진 이혜인 신호영

마케팅커뮤니케이션 4팀

팀장 김지혜 파트장 김영수 문왕기
책임매니저 신현정 허이슬 김예림 박미소 정영수
매니저 송태광 에디터 정혁준

마케팅커뮤니케이션 2본부

본부장 박배길 수석 황정은

마케팅커뮤니케이션 5팀

파트장 박종남 수석 김효선 임영화 책임매니저 이은지 정유진
매니저 김규태 김다은 이상복 김유진 탕예 한문규

마케팅커뮤니케이션 6팀

팀장 이수이 매니저 배용근 강지인 황주랑 정규홍 사원 유송빈

마케팅커뮤니케이션 7팀

팀장 탁귀영 파트장 박지호 책임매니저 최진성 김가언
매니저 봉장종 강혜빈 임은비 박상덕 최정인
사원 양제희 이민우

채용마케팅본부

본부장 김종원 수석에디터 이정섭 책임매니저 최규성

채용마케팅 1팀

팀장 유제문 파트장 홍성우 김형민
매니저 서창호 정희성 이성훈 박연우 최은지 이종혁
사원 이윤성 이정영 김건정

채용마케팅 2팀

팀장 유진혁 파트장 이준호
매니저 정기현 안창민 허정남 김다예 가민희 윤길주
사원 김용빈 김도희 목영진 변재은

채용마케팅 3팀

파트장 신재영 매니저 이지현 최승현 김정규
사원 조은솔 김은비 최현덕

디지털커뮤니케이션 본부

디지털커뮤니케이션 1팀

팀장 김범준 파트장 남승혁 책임매니저 김현주
매니저 김찬우 김동규 고민지 이아름 사원 송재은

디지털커뮤니케이션 2팀

팀장 차정기 수석 최은혜 책임매니저 권예빈 매니저 김민주 사원
송수진 이정수

디지털커뮤니케이션 3팀

팀장 이진희 수석 이교영 책임매니저 홍새봄
매니저 김애리 박소영 신예지 이나윤

디지털콘텐츠팀

팀장 김현승 책임매니저 양준호 이연제
매니저 정진복 서준원 이경민 최현정 한동주 김소영 설다운
사원 박지원

디지털디자인팀

팀장 이혜정 책임매니저 박지성
매니저 조현상 임다정 오은정 전계은 김희재 서지희

유스마케팅팀

팀장 이성진 파트장 명범준 박정은 양상범
매니저 박상헌 최은원 권민희 조서영 최창희
사원 김나래 김나영 신은지

공공커뮤니케이션팀

팀장 박강두 파트장 강국현 진우경 이재혁 책임매니저 정혜인
매니저 송정훈 이재은 사원 김지수 김하영 윤철한 황현아

20대연구소

소장 김영기 수석연구원 문송이 박진수 호영성
책임연구원 송혜윤 김금희 지승현 연구원 이재흔 정은미 장지성
에디터 남민희 사원 김다희

크리에이티브센터

파트장 정은우 전단비 수석 이윤경 책임매니저 윤정심 박미란
매니저 김소연 신재인 최웅진 사원 홍서연

이비즈(E-BIZ)팀

팀장 권판진 파트장 김부록 김진의 심재운
수석 임남훈 하윤희 정현옥 고은영
책임매니저 강주빈 김상호 이은주 박미란 매니저 박혜진 조이슬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김운선 책임매니저 원종구

경영지원팀

수석 김소연 윤수정 책임매니저 김주은

인재경영팀

팀장 박준하 책임매니저 김이슬 매니저 이상엽 이승훈

인턴

강수진 강진아 권혜연 김은경 김현 김현영 김효진 문다빈 문승의
박성지 박지연 서형석 신슬기 안성희 염광근 유영민 유현수
윤형철 이하늘 정상연 현요아 홍문영 황혜린

인쇄 프린피아 대표번호 02-735-3800 팩스 02-735-0005 배포문의 02-6925-0704
등록번호 서울다 05909 등록일 1999년 7월 9일 주소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43. 인성빌딩
(주)대학내일 홈페이지 http://univ20.com 20대 연구소 홈페이지 www.20slab.org

20 대학내일

PICK ME

아래 장소에서 대학내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AMPUS

(가나다순)

가천대
도서관, 바이오나노대학(평생교육원), 지하철역, 비전타워

가톨릭대
베리타스관(도서관), 마리아관, 김수환추기경국제관, 다솔관

건국대
도서관, 산학협동관, 공학관, 경영관, 후문, 인문대, 학생회관

경북대
복현회관, 도서관, 경상대, 복지관, 공학관 식당, 정보관 식당

경희대
청운관, 중앙도서관, 푸른솔문화관, 문과대, 정경대,
경영대, 한의대, 음악대, 호텔경영대, 생활과학대,
카페 양이 춤을 추는 커피네

경희대(경기)
학생회관, 우정원, 공학관, 국제경영대학관, 중앙도서관,
전자정보·응용과학대학관

계명대
도서관, 바우어관, 공학관

고려대
과학도서관, 중앙도서관, 사범대(신관), 중앙광장1,
중앙광장2, 문과대, 국제관, 우당관, 학생회관, 하나스퀘어

국민대
도서관, 경상관, 북악관, 예술관, 종합복지관, 법학관,
공학관, 조형관, 경영관

단국대
퇴계기념중앙도서관, 혜당관(학생회관), 인문관,
자연과학관, 버스정류장

대구대
경상관, 학생회관 1층, 학생회관 2층, 도서관

덕성여대
도서관, 학생회관, 인문대

동국대
학생회관, 상록원, 법대, 사회과학대, 문화관, 혜화관,
정보문화관, 명진관, 원흥관, 학림관, 중앙도서관, 신공학관

동덕여대
학생회관, 대학원, 숭인관

동아대(부민)
경영대, 사회과학대

동아대(승학)
인문사회대, 도서관

동의대
국제/상경대, 인문대, 학생회관, 상경대, 도서관

명지대
학생회관 식당 앞, 학생회관 본관 통로, 경상관, 본관

부경대
도서관, 호연관, 인문사회과학대학, 나비센터, 위드센터

부산대
문창회관, 금정회관, 제2도서관, 경영관, 사회관

삼육대
학생회관,다니엘관, 도서관, 바울관

서강대
하비에르관, 김대건관, 리찌과학관, 다산관,
정하상관, 우정원 1층, 우정원 식당 앞

서울과학기술대
도서관, 학생회관, 제2학생회관

서울대
중앙도서관(62), 학생회관(63), 신양학술정보관(4),
법과대학(15), SK경영관(58), 포스코스포츠센터(71-2),
셔틀버스 정류장 (본관 앞), 기숙사 식당(901),
제3식당(전망대)(75-1), 신공학관2(302),
신양학술정보관(44-1), 자연대 대형강의동(28),
자하연 식당(109), 생활과학대학(222), 사범교육협력센터(12),
동원생활관(113)

서울시립대
학생회관, 중앙도서관, 미래관

서울여대
샬롬하우스(기숙사), 인문사회대, 50주년 기념관, 학생누리관1,
학생누리관2

성균관대
중앙학술정보관, 학생회관, 경영관1, 경영관2,
경제관, 법학관

성균관대(경기)
학생회관, 의관기숙사, 제2공학관, 신관기숙사

성신여대
정문 앞 이디야 커피

세종대
도서관, 학생회관, 충무관, 광개토관, 군자관

숙명여대
도서관, 학생회관, 명신관1, 명신관2, 이과대

숭실대
기숙사

아주대
제1학생회관, 팔달관, 다산관, 중앙도서관, 종합관

연세대
대우관 1층, 대우관 지하, 공학원, 과학관, 과학원, 교육과학관,
광복관 1층, 광복관 지하, 중앙도서관, 연희관, 외솔관,
위당관,학생회관, 제3공학관, 경영관, 삼성관

연세대(국제캠퍼스)
종합관식당(지하), 도서관식당(지하)

영남대
상경대 1층, 상경대 2층, 중앙도서관,
과학도서관 식당, 학생회관

이화여대
도서관, 학관, 인문관, 학생문화관, 포스코관B1, 교육관A(좌),
교육관A(우), 교육관B

인천대
학산도서관, 학생회관, 복지회관(식당), 복지회관(매점)

전남대
도서관, 1학생회관, 경영대 1호관, 공대 7호관,
자연대 3호관, 사회대, 진리관, 인문대 1호관

전북대
중앙도서관, 1학생회관, 2학생회관, 상대1호관,
공대7호관, 후생관

중앙대
중앙도서관, 학생회관, 서라벌홀, 카페 더불유(기숙사 1층),
법학관, 제2의학관, 한울관, 비마관, 복지관

충남대
1학생회관, 2학생회관, 도서관, 경상관, 백마교양교육관

충북대
도서관, 학생회관, 경영대, 개신문화관, 생활과학대

한국외대
중앙도서관, 학생회관/국제학사, 인문과학관,
사회과학대학, 사이버관

한국외대(경기)
도서관, 학생회관, 교양관, 어문학관, 인문경상관

한국종합예술학교
본부관

한국체육대학교
체육과학관, 학생회관

한성대
도서관

한양대
지하철역, 백남학술정보관, 인문과학대, 자연과학대,
경제금융대, 학생회관, 여학생휴게실

항공대
학생회관, 과학관

홍익대
홍문관 1층, 홍문관 2층, 인문사회A동, 중앙도석관,
와우관,1도서관, 인문사회C동, 4공학관, 문헌관

ETC.
광화문 청년희망재단, 남도학숙, 신촌 파고다어학원

그래 바로 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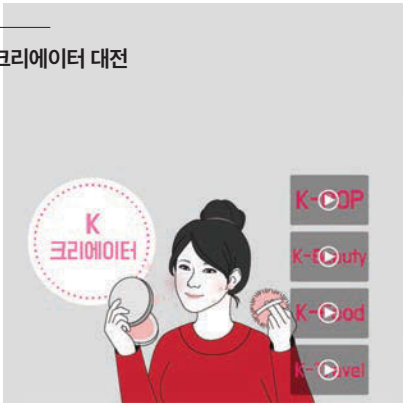
내 아이디어는

반짝뽀짝 하니까!

01

2018 K-크리에이터 대전

~10/5



한국 문화를 알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2018 K-크리에이터 대전에 도전해봐. 작품 형식은 자유 형식이며 K-POP, K-Beauty, K-Food, K-Travel을 소재로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영상을 응모하면 돼. 총 상금 2,600만원과 함께 수상자에게는 MBC플러스 인턴 기회까지 주어진다고 하니 꼭 도전해봐!

주최 방송문화진흥회/MBC플러스
접수 기간 ~2018년 10월 5일(금)
태그 #참신한_아이디어와_영상으로 #한국문화를_전파하자

02

2018 한국광고아카데미 2기

~8/27

머릿속이 광고 아이디어로 가득하다면 2018 한국광고아카데미 2기에 도전해봐. '한국광고아카데미'는 매주 광고계 전문가 특강과 함께 광고회사 실무진들과 같이 광고를 기획, 제작, 실행하며 광고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야. 대학생과 취준생 모두 지원 가능하대. 국제 광고제 출품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니 광고인을 꿈꾼다면 꼭 도전해봐!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사)한국광고총연합회
접수 기간 ~ 2018년 8월 27일(월)
태그 #광고_실무경험 #취업_광고제_장학금

갑아띠가 일상인 너를 위해 추천하는 **활동 BEST 4**

03

제10회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 광고 공모전

~9/14

일상이 아이디어로 가득하다면 제10회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 광고 공모전에 도전해봐. 공모 주제는 '책 읽기의 즐거움을 확산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로 인쇄 광고와 영상 광고 분야로 응모할 수 있대. 총 상금 1,900만원과 함께 수상자 전원에게 광고 전문 교육기관 수강료 50%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고 하니 꼭 도전해봐!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접수 기간 ~ 2018년 9월 14일(금)
태그 #책_읽기의_즐거움 #함께_읽는_대한민국

04

쥬씨 영상 아이디어 공모전

~9/9

신선하고 과즙미 터지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쥬씨 영상 아이디어 공모전에 도전해봐. '신선, 과즙, 폭발!'이라는 공모 주제를 참신한 아이디어로 표현한 60초 이내의 영상을 만드는 거야.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대상에게는 상금 100만원과 함께 365일 동안 쥬씨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VIP 쿠폰도 주어진다고 하니 꼭 도전해봐!

주최 쥬씨
접수 기간 ~ 2018년 9월 9일(일)
태그 #신선_과즙_폭발 #신박한_아이디어

EDITOR 캐미언니 outcampus01@naver.com
ILLUSTRATOR 김유진

결국 남는 건 **사진** **밖에** 없기 때문에

EDITOR 김혜원 hyewon@univ.me

ITEM

APP
그랩픽(GRABPIC)

PRICE
필름 1롤 4900원

인화가 귀찮은 게으름뱅이를 위한 필름카메라

"거기 벚꽃 밑에 좀 서 봐. 너희가 몰라서 그렇지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가족 나들이를 할 때면 엄마는 언제나 카메라를 챙겼다. 그러곤 온몸으로 귀찮음을 표현하는 나와 동생을 세워두고 셔터를 거듭 눌렀다. 덕분에 우리 남매는 유년 시절의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다. 여름의 계곡에서, 가을의 숲에서, 겨울의 바다에서. 너무 오래전이라 이젠 그런 곳에 갔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장소에서, 나와 동생은 뚱한 표정으로 브이를 그린 채로 남아 있다.

나는 요즘 꼭 엄마처럼 군다. 유난 떠는 것 같아 쑥스럽지만 기어코 카메라를 든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는 엄마의 말을 이해하게 된 탓이다. 알아버렸다. 찍어두지 않으면 순간은 얼마 지나지 않아 흐려질 것이고, 지금 함께 웃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우리'로 남아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걸. 뜬금없지만 페이스북의 '3년 전 오늘'이라는 기능을 볼 때마다 그 사실을 실감한다.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시절의 인연들이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의 가치를 알아버린 이후로 나는 자주 아쉬워한다. 중요한 순간엔 꼭 카메라가 없고, 게으른 나는 기껏 모아 놓은 소중한 장면들을 아무렇게나 보관한다. 예전에 쓰던 휴대폰과 카메라, 메모리 카드에는 오랫동안 정리하지 않은 사진이 의미 없이 쌓여 있다. 그뿐인가 필름 맡기러 가기가 귀찮아 현상을 미루다가 그 귀한 걸 영영 잃어버리기도 했다.(쯧쯧)

얼마 전 알게 된 '그랩픽(Grabpic)'이라는 앱은 개발자가 내 일기장을 훔쳐봤나 싶을 정도로, 그간의 모든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물건이다. 앱 안에서 4900원을 주고 필름을 사면, 휴대폰으로 후지필름 색감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별도의 보정 없이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합격. 또 진짜 필름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24장의 사진을 모두 찍으면 인화를 할 수 있는데(물론 휴대폰에 저장도 할 수 있다)… 여기에 게으름뱅이를 감동시킨 포인트가 있다. 버튼만 누르면 집까지 인화된 사진을 배송해준다!

지난달 제주 여행에서 요 복덩이 같은 친구를 아주 유용하게 썼다. 덕분에 카메라 없이 나선 산책길에 우연히 만난 근사한 노을을 필름에 담을 수 있었고, 동네 개와 신나게 노는 친구의 모습도 놓치지 않고 찍을 수 있었다. 지금 내 책상 앞에는 땀을 잔뜩 흘린 뒤 좋아하는 카페에 앉아 맥주를 마시던 순간이 한 장의 사진으로 붙어있다. 참고로 함께 가져갔던 필름 카메라로 찍은 필름은 아직도 책상에서 굴러다니고 있으니, 내 생활 방식에 맞는 카메라가 어느 쪽인지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다.

최근 여러분의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소비가 있다면? hyewon@univ.me로 제보해 주세요.

주간 가심비

최근 당신의 일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준 소비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좋은 걸 나만 쓰기 아깝다고요? 여러분의 소비 일기(원고지 5매 이내)와 소비를 보여줄 수 있는 예쁜 사진(3장 이상)을 보내주세요. 지면에 글과 사진이 실린 분들께는 원고료 10만 원을 드립니다. 원고료로 총알을 충전해 또 다른 소비를 하면 좋겠죠? 사세요, 삶의 질!

메일 hyewon@univ.me
※ 제목에 코너명 [주간 가심비] 포함
Ex.[주간 가심비] 원고 보냅니다!
※ 본문에 이름/학교/연락처 기재 필수

잡지에 글을 쓰고 싶은가요?

내 글도 싣고
원고료 10만원도 받고!

20's Voice

20대라면 누구나 대학내일에 글을 기고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겪고 느낀 솔직한 이야기를 A4 1장(원고지 10매 이내) 분량으로 보내주세요. 지면에 글이 실린 분들께 원고료 10만원을 드립니다.

메일 magazine@univ.me
※ 본문에 이름/연락처 기재 필수

누구를 위한 **팀플인가**

**교수님,
수업하기 싫어서
팀플 발표로
강의 채운 거라고
오해할 뻔했습니다**

WRITER 하채린 pin226@naver.com
당분간 팀플 안 해도 되는 예비 휴학생

"그럼 역할은 사다리타기로 나눌까요?" 팀 발표일까지 2주 정도 남은 상황, 학기 초 만든 팀플용 단톡방이 슬슬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눈치 게임이 시작되려던 찰나, 누군가가 용기 있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안했다. 서로 속 보이게 '희망하는 역할' 따위 말하지 않고 본인의 운에 모든 걸 맡기면 되니 얼마나 편한가. 카톡 캐릭터 친구들이 사다리를 탄다. '아 진짜 발표만 아니었으면 좋겠다. 나 말고 아무나 걸려라, 제발.' 톡방에도 짧은 정적이 흐른다. 웬일이지? 이번 팀플은 자료 조사다. 내 운명아, 고맙다.

팀플을 빼놓고 대학 생활을 논할 수 있을까. 팀플은 수강신청 전부터 이번 학기 들을 수업을 결정하는 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학기 중에는 팀플 모임 약속에 맞춰 나의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도 자주 생긴다. 가만 생각해보면 팀플은 악명이 높긴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긴 하다. 세상에는 혼자 하는 일보다 다른 사람들과 협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이 훨씬 많다. 따라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의사소통 능력, 의견 표현력 등을 길러주려면 팀플을 알차게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매우 동의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거쳐 온 수많은 팀플의 절대다수는 결과물(주로 PPT) 발표를 위한 형식적인 팀플, 그저 팀플을 위한 팀플이었다. 교수님은 우리가 팀플 모임을 '토론의 장'으로 활용하길 바라셨겠지만, 실제로는 얼른 끝내 놓아야 마음이 편한 과제들 중 하나일 뿐이었다.

팀플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주제로 제시할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교재나 참고도서를 정리해서 발표하는 팀플이나, 교수님이 원하는 방향이 명확한 주제 또는 너무 도덕적으로 올바른 답이 정해져 있는 주제로 발표해야 하는 팀플에서는 팀원들 사이에 다양한 논의가 일어나기가 어렵다. 팀플로 기대하는 효과를 제대로 얻기 힘들다는 말이다. 한번은 전공 수업에서 특정 교육 사상을 조사하고 발표하는 팀플을 했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고 정리해서 발표만 하면 끝이었다. 수업 이름은 교육철학 '탐구'였지만 여느 팀플을 할 때와 과정은 비슷했다. 신속한 분업화로 각자 자료를 정리하고 퍼즐처럼 끼워 맞춰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냈다. 이 팀플 하면서 철학적으로 탐구해봤냐고? 글쎄….

'SNL 조별과제 잔혹사'라는 영상은 방송된 지 3년이나 지났지만, 유튜브 영상 누적 조회 수 35만 회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까지 큰 공감을 받고 있다. 이 영상에는 다양한 팀플 '진상' 유형이 등장하지만, 그중에서도 프리라이더는 최악의 팀원으로 묘사된다. 그래도 요즘은 동료평가제 때문에 무임승차는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렇지만 팀에서 각자의 역할과 그에 대한 평가가 명확해야 해서 '평가서에 적을 내 할 일'만 다 하면 끝이라는 분위기가 더 만연해진 것 같다. 자료 조사도 내가 담당한 부분이 아니면 잘 모르고, 발표자도 PPT 완성본만 가지고 대본을 짜서 읽는 경우도 많다. 팀 작업인데 팀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발표 당일에 내가 맡지 않은 부분에 질의응답이 들어오기라도 하면 쩔쩔매는 거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팀플에 대해서는 무덤덤해진다. 다년간의 팀플 경험을 통해 어떤 역할을 맡더라도 귀찮고 형식적인 것은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적당히 역할을 나누고 얼른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팀플로 배운 게 무엇인지? 정말 무엇을 위한 팀플인지 다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팀플의 본래 취지를 못 살리는 것이 학생들 탓만은 아닐 것이다. 일단 교수님들도 팀플 주제로 다양하고 참신한 주제, 논의가 꼭 필요한 주제를 선별해서 제시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수님, 저희가 발표하면 피드백은 제대로 해주세요. 수업하기 싫으셔서 팀플 발표로 강의 계획 꽉꽉 채우신 거라고 오해할 뻔했습니다.

에세이 기고는 magazine@univ.me

내 자취방에
단 하나의 요정을 키울 수 있다면?

EDITOR 구하민 DIRECTOR 김슬 ILLUSTRATOR 윤희선

1

화장실 클린앤클리어

화장실의 물때와 곰팡이를 관장하는 요정. 부모님의 방문 전날, 대청소 치트키 가능.

2

쓰레기 파괴왕

통이 다 차면 자동으로 쓰레기를 없애주는 요정. 종량제 봉투 살 필요 없어서 꿀.

3

벌레 퇴마사

무서운 벌레를 순식간에 잡아주는 요정. 사체도 치워주므로 내 손 더럽힐 일 없음.

4

아 맞다 파인더

엄마처럼 방 안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는 요정. 이어폰 찾느라 지각할 일 없음.

5

집밥 배달부 키키

몹쓸 음식을 집밥 퀄리티로 바꿔주는 요정. 단, 내가 직접 요리한 음식만 가능.

6

그릇들의 구원자

일주일에 한 번 설거지를 해주는 요정. 산더미처럼 쌓아놓기만 하면 오케이.

7

스타일러 팅커벨

옷을 아무렇게나 던져놔도 정리해주는 요정. 탈취는 기본, 각까지 잡아줌.

8

생필품 체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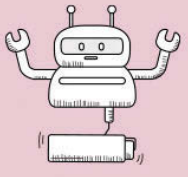
휴지와 생수 등의 재고를 점검해주는 요정. 똥 싸다 휴지 없어서 난감할 일 없음.

9

관리비 타노스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를 딱 반 토막 내주는 요정. 여름에 에어컨 더 오래 틀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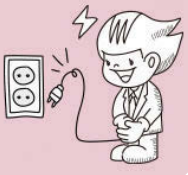
10



로보캅 돌돌이

작은 이물질들을 자동으로 떼어내주는 요정. 바닥에 굴러다니는 머리카락들 안녕.

11



콘센트 지킴이

깜빡 잊고 안 뽑은 코드 (ex. 드라이어)를 감시하는 요정. 전기요금과 안전을 한 큐에 잡아줌.

12

꿈속의 나이팅게일

아플 때 나타나 간호해주는 요정. 약을 먹이고 죽을 끓여놓은 후, 쿨하게 사라짐.

너와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I am 안녕하세요. 대학교 4학년이자, 너와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는 작가 강한입니다. 최근에 SM엔터테인먼트, 랩노쉬와 함께 작업을 했고, 이번에 대학내일 Think 칼럼 코너에 일러스트를 연재하게 되었어요. 내 작업실이 아닌 어딘가에서 내 그림과 마주칠 때, 그 행복감을 원동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양화 전공이라고? 나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 건데, 학교에서 그리는 무거운 그림들은 나를 나타낸다기보다 오히려 평가의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두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휴학을 계기로 내가 정말 그리고 싶은 것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내 그림에는 어떤 재료가 어울리고 어떤 색감을 쓸 때 내가 가장 즐거울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지금의 스타일을 잡게 됐어요.

그리면서 가장 즐거운 것 귀여운 단발머리 소녀! 내가 입지 못하는 커다란 퍼프의 빨강 원피스와 메리제인 슈즈를 멋지게 소화해주는 내 마음속 소녀를 그릴 때 가장 즐거워요. 숨겨진 내면을 나타내는 수단으로도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재학 중에 프리랜서 생활을 하고 있는 비결? 일러스트레이터의 가장 큰 장점은 학벌과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다는 점 같아요. 휴학을 하고 그림을 그리던 과정에서 작업 의뢰가 들어와 지금 같은 생활을 하게 됐는데, 작업과 학업을 겸한다고 특별할 건 없어요. 물론 알바보다 전문적인 일이긴 하지만, 예전보다 노는 걸 좀 줄이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 쓰다 보니 생각보다 힘들진 않아요.

그림으로 전하고 싶은 것 뻔한 말이지만 제 그림을 보고 행복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제 그림을 소개할 때 늘 하는, '너와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라는 말처럼요. 제 그림들로 사람들 마음에 작은 즐거움들이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매일 밤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학교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안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니까 그 걱정으로 보낸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제 신조는 '뭐라도 하면 된다'예요. 한 가지만 열심히 해도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긴다고 믿어요. 내 인생인데 굳이 다른 사람의 기준과 희망에 부응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 인생에 확답을 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내 선택의 책임은 내가 져야 하는 거니까요. 모쪼록 모두 20대를 자기만의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작품 투고: magazine@univ.me 자신의 작업을 소개하고 싶은 20대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WHO?

ILLUSTRATOR 강한
Instagram @_kang_han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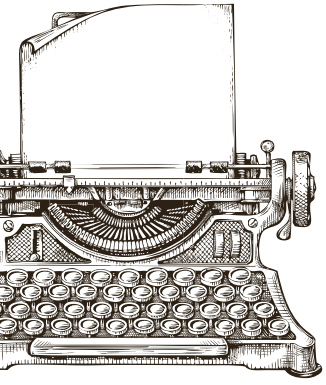
"

뻔한 말이지만 제
그림을 보고 다른
분들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제 그림을
소개할 때 늘 하는 말인
'너와 내가 좋아하는
그림'이라는 말처럼요.

● 고사리 가방

● 김성라

● 12,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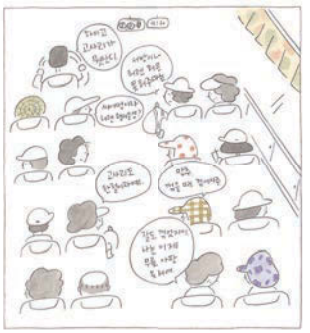
PICTURE BOOK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늘도 서울살이가 고달팠던 누군가에게

서울에 오래 있으면 마음의 물컵이 점점 비어가는 기분이 든다. 물이 바닥이 보일 때면 그래서 숲이나 강이나 바다 같은, 물기 어린 것들을 보러 간다. 고향에도 간다. 내가 떠나온 곳, 이젠 어린 시절의 기억처럼 어딘가 멀어진 듯한 기분이 드는 곳에. 김성라 작가가 그리고 쓴 『고사리 가방』은 그렇게 자주 바닥나곤 하는 마음에 서서히 물이 차오르게 하는 책이다. 고향을 떠나오고 엄마를 떠나온 사람이라면 더욱 오래 들여다보게 될. 이제는 '집'에 가면서 여행을 떠나듯 짐을 꾸려야 하는 우리. 버스나 기차를 타고서야 닿을 수 있는 고향. 그곳에서 해가 높이 뜰 때까지 늦잠을 자다 잠자리 왔느냐는 타박을 듣고, 내가 떠나온 풍경을 새삼스레 들여다보고, 다시 타박타박 서울로 돌아오곤 하는 모두에게 말을 거는 이야기.

책 속에서 빵실한 단발머리를 한 주인공은 매년 4월 벚꽃이 필 무렵이면, 엄마의 바람길에 친구가 되려 고향 제주에 간다. 어딘가 귀엽고 다정하게 들리는 제줏말도, 새벽같이 버스를 타고 고사리를 찾아 떠나는 제주 사람들도 귀엽지만 무엇보다 이 책을 따뜻하게 만드는 건 그 모든 것을 조곤조곤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다. 빈 새둥지와 제비꽃을, 버스 너머로 바다가 나타나는 순간을, 엄마의 눈매와 입매가 변하며 만드는 표정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거겠지. 그 곁을 따라 걷는 동안 비로소 내가 못 보고 지나친 것들을 함께 볼 수 있었다.

여름 동안 나도 고향집에 다녀왔다. 날도 더운데 자꾸 옥상에 가서 맥주라도 마시라는 아빠의 부추김에 왜 그러나 했더니 새로 꾸며놓은 옥상을 자랑하고 싶었던가 보다. 어디를 둘러 봐도 짙푸른 산이 보이는 너른 옥상에 잘 닦아놓은 평상이 놓여 있었다. 거기 누워 비스듬히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풀벌레 소리와 개구리 우는 소리가 번갈아 들려왔다. 고향에 살 때 나는 이곳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만 생각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멀어진 지금은, 그곳에만 있는 것들이 보인다. 산의 능선 위로 해가 지는 풍경, 사계절이 선명히 짙어졌다 사라지는 들판, 그곳에서 이어지는 내 부모의 삶…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건 장소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고사리처럼 발밑에 있을 땐 잘 안 보이지만 조금 걷고 나서 돌아보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것도. 그래서 그을린 얼굴로 서울에 돌아왔을 때, 이 책을 누구에게든 건네고 싶어졌다. 마지막 장을 덮을 때쯤엔 나와 같은 마음이 되고 말, 고향을 떠나온 지 오래된 나의 친구들에게. 김신지



엄마는 봄이면 바람이 난다.
4월의 일주일,
나는 엄마의 바람길에
친구가 된다.
아니, 그건 핑계일지도 몰라.
나도 바람이 나는 건지도 모른다.

-『고사리 가방』 中

● 내게 무해한 사람

● 최은영

● 13,500원

SHORT STORY

우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왜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인생에서 사라진 이들을 찾을까. 물론 내게도 취하면 보고 싶은 이들이 있다. 그중 반절 이상은 별일도 없이 멀어져 남이 된 옛 친구들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한 친구와도 큰 싸움 없이 연락이 끊겼다. 한참 잊고 살았는데 얼마 전에 엄마가 "너 K랑은 이제 안 만나냐? 결혼한 것 같던데."라고 물었다. 괜히 머쓱해서 못 들은 척하고 있었더니, 뼈 있는 말을 툭 던지곤 전화를 끊으셨다.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친구랑 싸워. 사이좋게 지내 늙어서 친구 없으면 외롭다." 그러게 엄마. 나는 친구가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런데 다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정이란 원래 그런 게 아닌가 싶다. 최은영의 소설집 『내게 무해한 사람』에도 맹목적인 애정을 쏟다가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받은 뒤 헤어진 관계가 여러쌍 등장한다. 수록작 「모래로 지은 집」은 나비, 모래, 공무, 세 사람이 틔운 우정의 싹이 자라고 시드는 과정을 담은 이야기다. 넉넉한 가정에서 자란 모래의 다정함과 여유로움은 형편이 어려운 나비에게 상처가 돼고, 나비의 방어적인 태도는 모래에게 배신감을 안긴다.

소설이 보여주는 우정의 끝은 현실 속 우리와 다른 듯 닮아 있어서 책을 다 읽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든다. 어쩌면 우리가 우정을 오해하고 있던 건 아닐까? 일단 친구가 되고 나면 저절로 지속될 거라고. 사실 우정은 사랑만큼이나 지키기 어려운 것이었을 텐데. 김혜원

NETFLIX ORIGINAL

긍정의 무게가 버거운 이들에게

● 빨간머리 앤2

● 원제: ANNE WITH AN 'E'

● 출연: 에이미베스 맥널티, 제럴딘 제임스 등

스무 살의 나를 기억하는 한 친구가 "나는 너 외계인 같았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지구인이라면 응당 가질 법한 평범한 불행조차 나에겐 없어 보였다나. 힘든 일이 있어도 티 내지 않고, 고민 따위 없는 척 생각에 철벽을 치던 '긍정적인'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의 강박적인 긍정은, 구김살 없는 아이로 보이고픈 욕심과 내 그늘을 드러냈을 때 사랑받지 못할 것이란 불안 때문이었으리라.

2018년의 나는 완연한 지구인이 되어 있다. 친구들만 만나면 봇물 터지듯 답 없는 고민과 근심을 대방출한다. 부정적인 기운을 마구 내뿜는데도 친구들은 그 옛날 걱정했던 것처럼 나를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어깨를 토닥여주고 위로랍시고 시시한 농담도 건네준다. 내 그늘을 보여줬지만,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 이 사실을 더 일찍 알았더라면 긍정을 짊어지고 괜찮은 척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이 평범한 진리는 넷플릭스 시리즈 <빨간 머리 앤 2>의 앤에게도 적용된다. 화면 속엔 어린 시절 책에서 봤던 밝고 낙천적이기만 한 앤 대신 고아원에서 겪은 일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앤이 등장한다. 생각해 보면 파양의 아픔까지 겪은 앤이 마냥 밝을 리 없는데…. 원작인 책 속의 앤도 때론 스무 살의 나처럼 긍정의 무게가 버겁지 않았을까. 혹자는 우울해진 앤을 보고 #notmyanne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달아 불만을 표했다지만 나는 외계인 같지 않은, 현실에 발붙인 넷플릭스 표 앤도 충분히 사랑스럽다고 생각한다. 서재경

나는 여권이 없는 20대입니다

EDITOR 권혜은 hyen@univ.me

지난 학기에 복학을 했어요. 1년 만에 만나니 어색한 사이였던 동기들조차 반갑더라고요. 그 질문을 받기 전까지는.
"휴학 동안 뭐 했어? 유럽 여행 안 갔다 왔어?"
"국내 여기저기… 그냥 쉬었지 뭐."

언제부터 유럽 여행이 휴학의 연관검색어가 됐을까요? 전 3학년, 그러니까 다섯 번의 방학을 맞는 내내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거든요. 주변만 봐도 저 같은 경우가 드물긴 해요. 저희 과만 해도 방학마다 동남아나 일본에라도 꼭꼭 다녀오는 애들이 많아요. SNS에 접속해보면, 여행 다녀와서 올린 게시물로 넘쳐나고요. 사실 지금 전 여행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다들 제가 그렇게 짠한가 봐요. 팔자 눈썹으로 묻는 "여행 가서 힐링하고 싶지 않아?"x100에 어색하게 웃다 왔어요.

제가 스물셋 먹도록 여권조차 없다는 걸 알면 더 안타까워할까요? 특별한 이유로 만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당장 쓸 일도 없는데 굳이 수고를 들여야 할 이유를 못 느꼈어요. 쓸모가 없는 곳에 에너지를 쓰기엔 제 삶의 우선순위가 너무 확고했거든요. 등록금, 자취방 월세, 생활비…. 가끔 주변 어른들이 20대에 돈은 없어도, 건강과 시간은 있지 않냐고 하시는데 글쎄요. 제 시간은 이상하게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때로는 건강도 챙기기 벅차던데요. 학기 중에는 보통 하루에 한 끼 먹거든요. 아침 10시부터 오전 수업을 듣고, 자취방이나 학생 식당에서 끼니를 대충 때워요. 오후 수업이 끝나면 알바하는 카페에 갔다가, 밤 10시에 마감이 끝나야 집으로 돌아오고요. 몸이 축나서, 휴학 중에는 그냥 쉴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저는 여행을 가기 위해 노력하기를 포기한 걸지도 몰라요. 여기에서 조금만 더 알바 시간을 늘리면, 눈 딱 감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면, 당장 다음 방학에 유럽 여행을 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제에, 팀플에, 시험으로 밤샘을 하다 보면 좀비가 되어버리기 일쑤인데 무슨 체력으로? 이제 졸업반이라 학점 관리를 소홀히 할 수도 없는데 무슨 정신으로? 소득 분위가 내려가 국가 장학금을 못 받게 될까봐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 졸이신 줄 알면서 무슨 염치로?
아예 시도도 해보지 않은 건 아니에요. "우리 가까운 일본이라도 가자!" 비슷한 처지의 친구와 도원결의를 하기도 했었죠. 땡처리 항공권이 뜰 때마다 부지런히 즐겨찾기를 해두었지만, 번번이 무산됐어요. 계획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더라고요. 왜 땡처리 알람은 꼭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만 골라서 울리는지. 몇 과목 성적은 쿨하게 버린다고 쳐도, 알바를 어떻게 버리겠어요. 당장 주휴수당이 날아가는 건 물론이고, 3~4일 휴가를 빼달라고 말하라니. 전 못 해요. 아무리 사람 좋은 사장님이라도 "응 (영원히) 쭉 쉬어~." 하지 않을까요? 대타를 못 구하면, 알바를 그만두고 가는 수밖엔 방법이 없겠죠.

무리해서 여행을 다녀왔다고 과연 제가 기쁠까요? 걱정만 불어날 게 뻔해요. 숙박과 항공, 식대를 생각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60만원 깨지는 건 금방일 텐데…. 모아둔 돈 털어 쓰고 다녀와선 어떻게 살죠? 알바도 다시 구해야 할 텐데, 요즘은 취업 자리 구하는 것만큼 힘들어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알바 자리 TO가 줄었거든요. 대학생이라고 다 과외 알바 하던 시절도 아니고. 제 주변에는 프랜차이즈 카페나 편의점만 골라 25군데나 지원했는데, 면접조차 못 보고 20군데를 광탈한 친구도 있어요. 결국 대학에 들어와 맞는 다섯 번째 방학에도 여행에 돈을 쓰느니, 전기요금 걱정 없이 에어컨이나 팡팡 틀자고 맘을 돌렸죠.

"여행도 때가 있는 거야. 인생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살아." 주변 사람들이 악의 없이 건넨 말에 가끔은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의심에 빠지기도 해요. 20대에 반드시 해봐야 할 일 중 하나를 놓친 것처럼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화도 나죠. 저는 한국이 좋아서, 노는 게 싫어서, 여행을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여행을 가라고, 인생을 즐기라고 하는 이유가 '다양한 경험' 때문이라면, 저는 매일 하고 있어요. 다양한 손님, 동료, 친구 속에서 부딪치고 깨지면서 치열하게 인생을 배우고 있죠. 이런 시간들이 하찮고 무의미한가요?

오늘도 퇴근 후에 씻고 나와서 시원한 맥주 한 캔을 땄어요. 그리고 상상했죠. 졸업 후 직장인이 된 제가 눈 내리는 일본의 온천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요. 지금은 그 상상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속도가 있는 거니까.

노는 것도
때가 있는데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사냐고?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거든요

20 대학내일

20대를 위한 라이프 가이드 매거진

다양한 채널에서 만나보세요!

click:

www.univ20.com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는 공식 사이트

Magaz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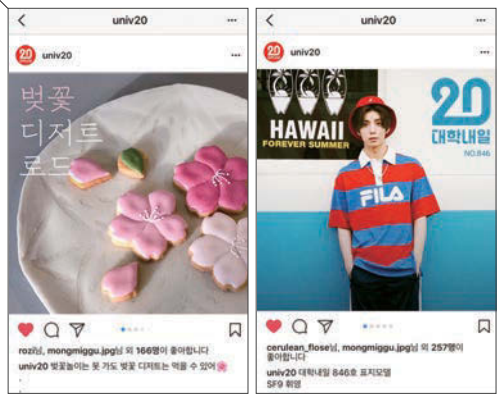
매주 월요일 전국 캠퍼스에 배포

YouTube

대학생 폭풍 공감 영상들이 가득!

Instagram

#소통해요 #선팔환영 @univ20



Facebook

56만 독자들과 함께 보는 꿀잼 콘텐츠 @UNIVtomorrow

개강 왜 싫어요?

화석이라
조장 당첨

자유의지 NO
강제 단체생활

과제, 팀플, 중간고사…
걱정 한가득

뭘 배우는지
모르겠…

구 남친
복학!!!

강의실에
침대 없어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

방학 동안
못생김
장착

학교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더부룩해진다고요?
네, '개강 증후군'에 걸리셨습니다.
대학생 2명 중 1명이 앓고 있다는
'개강 싫어증'! 여덟 가지 유형별
고민에 실제 경험자들이 응답했습니다.
어차피 할 개강이라면 경험자들의 처방
받고, 마음이라도 편히 가세요.

EDITOR 권혜은 hyen@univ.me **INTERN** 현요아

01 화석이라 조장될까봐 싫어요

Q 이번에 제대해서 복학합니다. 동기들과 함께 입대해서 아싸는 아니지만 조장되는 게 두렵습니다. 학번 제일 높다고 덤터기 쓰는 게 벌써 눈에 보여요. 한 수업만이면 그러려니 할 텐데, 아마 매 수업마다 비슷하겠죠? 책임이 늘어나는 만큼, 좋은 점도 늘어나면 다행인데 동아리에서는 후배들이 절 불편해할까 걱정입니다. 개강 총회는 나가도 될까요?ㅠㅠ

A 저는 막 학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화석이라는 말, 어감부터 너무 별로지 않나요. 후배들이 저를 그렇게 부를 때마다 열받아요…!(손톱 드릉드릉) 하지만 아무리 '시조새'라고 불려도, 저는 굴하지 않습니다. 그딴 말에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고작 두세 살 차이일 뿐 그래봤자 다 같은 20대 아닌가요? 아직 20대 중반일 뿐인데, 왜 주변의 잣대에 우리 스스로를 늙다리 취급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그렇게 스스로 울타리를 치니까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졸업 전 로망이었던 댄스스포츠 수업을 들으려 해도 '난 화석이니 싫어할 거야', 동아리 뒤풀이를 가려 해도 '18학번들이 날 무서워하겠지?'처럼. 님도 너무 화석이나 시조새란 말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조장을 맡을 확률이 18학번보다 월등히 높다는 건 부정하지 않을게요.(또르륵) 하지만 경험치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고학번이니까 '네가 다해라' 같은 분위기라면? 약간 슬픈 표정으로 말해보세요. "학교를 2년간 쉬어서 감이 떨어졌…" 문장을 끝맺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 학기에 써먹은 방법인데, 제법 효과가 있더라고요.

02 외롭게 혼자 다녀야 해서 싫어요

Q 큰일 났어요! 이번 학기부터 친구들이 전부 취업 준비와 어학연수로 휴학을 한대요. 아직까지 혼밥을 못 하는 쫄보라 너무 걱정돼요. 안 친한 동기들한테라도 친한 척 들러붙어야 할까요? 워낙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어색어색 열매 먹을 걸 생각하면 벌써부터 눈에서 땀이 흘러요….

A 여기 낯가림 대잔치가 열렸다던데, 저 찾으신 분…? 얼마 전까지는 저도 그랬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위산이 나올 지경인데도, 친구들과 시간이 안 맞으면 하루 종일 쫄쫄 굶었다니까요. 혼자 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고 불안한데, 그렇다고 새로운 사람들을 사귈 용기는 또 없었죠. 알아서 자기 것을 챙기는 동기들을 보며 개인주의적이라고 혼자 속으로 흉보기도 하고요.

근데 어느 순간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나는 왜 기껏 대학까지 와서 남들 눈치만 보고, 남들 생각만 많이 해주고 있나! 관점을 바꾸니 외로움을 타는 시간도 아깝더라고요.

처음에는 혼자 있는 시간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보세요. 모두와 친해지려고 억지로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학교 주변에 단골 카페를 만들어 두면 편하죠. 나 말고도 혼자 오는 손님들이 많은 곳이면 더 좋겠죠? 편안한 마음으로 밀렸던 일기를 쓰거나, 달달한 디저트로 당 충전을 할 수도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혼자인 시간을 오롯이 즐기며, '나'하고 제일 친하게 지내보는 거예요.

03 강제로 단체 생활 하려니 싫어요

Q 선배를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OOO 선배님!"이라 외쳐야 하는 신입생입니다. 어조에서 느끼셨겠지만, 저희 과는 위계질서가 강해요. 똥군기도 있어서 매일 후배들이 비위를 맞춰야 한답니다. 피하고 싶지만 학과 행사에 불참하면 장학금에서 밀려난다니 꼭 가야 하고요…. 콱 장학금을 포기할까요? 아니면 억지로 참여해야 할까요?

A 꼰대와 상극인 진성 아싸입니다. 대체 똥군기는 어떻게 해야 박멸할 수 있을까요…?(할말하않) 안 그래도 바쁜데 꿔다 놓은 보릿자루 취급당하면서, 원하지도 않는 술을 진탕 마셔야 한다니. 고통 받았던 나날이 떠오르네요…. 근데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20대 꼰대들 때문에 우울해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도 없고요.

우선 똥군기 잡는 선배들의 말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아요. "과 행사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은 장학금 없다!"라며 겁을 줘도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으니까요. 과 장학금은 성적에 따라 정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억울해서 어떡하죠? 참석률을 높이려고 거짓말 하는 것일 수 있으니, 일단 학교에 확실히 문의해봅시다.

참석하지 않으면, 정말 장학금을 못 받는 행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억지로 나가야만 할 때는 열심히 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경우 판단 기준은 '인싸였는가?'가 아니라, '참석했는가?'잖아요. 괜히 꼰대들과 얽혀 스트레스 받는 대신, 술자리 구석에 모인 사람들과 수다를 떨다 스르르 집으로 사라지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죠. 아마 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억지로 나왔을 확률이 높을 걸요?

04 걱정할 게 많아져서 싫어요

Q 왜 벌써 개강인 거죠? 제대로 놀지도, 쉬지도 못하고 방학을 보냈는데…! 이렇게 어영부영 9월이 되고, 그러다 보면 바로 중간고사가 오겠죠.ㄷㄷ 앞으로 채워야 할 학점도 많고 재수강해야 할 과목도 산더미인데 그걸 언제 다 하죠. 앞날이 까마득해서 한숨만 나와요. 12월은 대체 언제 오는지. 걱정만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A 님에게서 익숙한 향기가 나는데, 약간 사서 걱정하는 st? 그 분야에는 저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십 대 때부터 걱정이 많기로 유명했죠. 수능 전날에도 잠을 못 이루다가, 컨디션 관리에 대실패해서 재수를 하기도 했고요.(따흙)

어떤가요? 저처럼 다가올 일을 미리 걱정하다가, 역효과가 난 적은 없었나요? 수료를 앞두고 대학 생활을 돌아보니,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1도 없었더라고요. 팀플 망하면 어쩌지, 학점 빵꾸 나면 어쩌지. 걱정은 9학기 내내 많이 했지만, 결국 벌어질 일은 벌어지고 안 벌어질 일은 안 벌어져요!

마흔이 되어도 인생이 두려운 건 마찬가지일 걸요? 앞날을 모르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마음이 좀 편해져요. 예를 들어, F학점! F학점 받는다고 인생이 당장 망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참, 육신의 노력만은 필수랍니다. 당장 눈 앞의 해야 할 일은 내팽개치고 쭉~걱정만 한다면, 결국 저처럼 9학기에 학점 세탁하느라 후회할 거예요….

05 방학 동안 못생겨져서 싫어요

Q 예쁜 친구들이 많은 과라 얼평이 일상인 분위기예요. 방학 동안 독기를 품고 살 빼려고 했는데, 오히려 5kg가 쪘어요. 날은 푹푹 찌고 땀은 계속 나는데 어떻게 찔 수가 있죠?! 만회해보겠다고 미용실에 갔는데요. 모든 헤어스타일의 완성은 얼굴이더라고요. 진짜 존못...거울 깰 뻔했습니다. 저 학교 어떻게 가죠?

A 저도 365일 다이어터로 살았던 시절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몸을 가꾸는 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건데, 어느 순간 무엇을 위해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건지 자꾸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전 건강한 몸을 만들고 싶었어요. 근육도 탄탄하고 체지방도 적당한 멋있는 몸.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예쁜 몸을 만들었죠. 근데 주변 사람들은 제 몸무게만 보고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빼면 예쁘겠다. 근육이 너무 크지 않아? 165cm에 60kg. 저는 딱 표준이었는데 말이에요. 얼마 전에 여자 연예인들더러 살쪘다고 지적질하는 기사가 한 가득 떴더라고요. 건강 이상 아니냐고 비꼬면서요. 사실 너무 마른 몸매도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건 다들 잘 알잖아요.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흠 잡는 시선에 주눅 들지 맙시다. 살이 좀 찌고, 머리가 좀 망했으면 어때요? 내 몸의 아름다움은 나를 위한 건데 말이에요. 나의 행복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입니다. 가수 에일리의 용기있는 말처럼요. "(49kg이) 보기엔 좋았을지 몰라도 가장 우울했던 시절이다. 지금 내가 너무 행복하다."

06 구 남친이 복학해서 싫어요

Q 지난날의 전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요? 3월, 첫 학기부터 CC는 안 된다던 선배들의 얘기는 한 귀로 흘린 채 손 꼭 잡고 캠퍼스를 휘젓고 다녔죠. 그래도 불편하진 않았어요. 나쁘게 헤어진 것도 아니고, 헤어지자마자 구남친은 군대에, 전 어학연수를 갔거든요. 문제는 이번 학기입니다. 구남친과 함께 복학하게 됐거든요. 같은 조라도 된다면 어떡하죠….

A 구 남친과 깔끔하게 헤어진 사이라니 부럽네요. 우선 축하한다는 말씀부터 드릴게요! 구 남친이 새내기와 바람을 피웠다거나, 다음 주에 군대 간다는 걸 친구한테 들었다거나….(친구 이야기입니다. 절대 제 경험담은 아니에요.^^) 이런 게 이별의 이유였다면 분노와 살기까지 추가되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별의 이유가 내 안의 폭력적인 본성을 끌어올린다고 해도 괜찮아요. 이미 헤어진 지는 2년이 넘었고, 알콩달콩했던 시간보다 안 알콩달콩한 시간이 더 길어졌죠. 그 정도면 남 아닌가요?

마음먹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건 잘 알아요. 과 CC였다면 더더욱 그렇겠죠. 동기부터 선후배들까지 죄다 연애사의 목격자일 테니까요. 하지만 남들은 생각보다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집에선 남몰래 구 남친 SNS를 털더라도, 학교에선 "다 지나간 일이지~" 최대한 쿨한 느낌을 풍겨주세요. 생활 연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불편하다면서 친구들에게 징징대거나, 오버해서 구 남친을 의식하지는 맙시다. 다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두 사람보다 주변 사람들이 더 불편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연스러움'입니다. '지나간 인연은 새로운 인연으로 잊겠다'며 캠퍼스 내에서 급히 새 남친을 만들지도 마세요. 그건 흑역사 채굴기를 일시불로 사는 거니까.

07 뭘 배우는지 모르겠어서 싫어요

Q 나름 마음에 드는 전공으로 입학한 불문과 신입생이에요. 불어에 대한 뽕이 차올라서 모든 공부가 신날 줄 알았어요. 학점이 C밭이라며 자조하는 과 선배들을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첫 학기에 전공 수업을 들었는데 도무지 재미가! 없어요! 결국 방학 때 전공 공부하겠다는 계획도 망. 개강 이후 수강할 의지는 더 똥망. 대학 생활, 원래 이런 건가요?

A 제 과거 일기인 줄? 전 1학년 때부터 자퇴를 생각하다, 지금은 졸업논문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온 제 자신에게 치어스! 선배들은 "1학년 때 무슨 고민이야~ 그냥 놀아!"라고 말했지만… 신입생 시절 저는 꿈꾸던 대학 생활이 좌절되어 우울의 늪에 빠져 있었죠. 고심해서 고른 전공이 재미없다니, 그야말로 혼파망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그 마음을 이해해요(토닥토닥) 제 생각엔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기 같아요. 아직 1학년인데 벌써 전공이 재미없으면, 뒤로 갈수록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교수님이 친절히 설명해주시지만, 3학년만 되어도 불친절한 과제들이 쏟아진답니다.^^ 학년과 전공 난이도와 정확히 반비례하는 학점! 비극의 시작인 거죠.

저번 학기가 고통스러웠다면, 이번에는 수강 정정을 노려 전공과 무관한 수업을 신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관심이 있는 다른 전공 분야도 좋지만, 연기나 호신술, 수영처럼 관심 있는 교양 수업 하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들 걸요. 그 틈에 고민해보는 거예요. '정말 이 길이 맞나?' 하고. 아직 전공을 바꿀 기회를 놓치기 전이고, 방학도 7번이나 남았잖아요. 즐거운 대학 생활을 지레 포기하지 말아요!

08 침대에서 일어나야 하는 게 싫어요

Q 방학 때 밤낮이 아예 바뀌어버렸어요. 집돌이라 방학 때 집 밖으로 거의 안 나갔거든요.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가 아침에 잠들어서 오후에 깨고. 천국이었죠. 그런데 이번 학기에 수강 신청을 망해서 1교시 수업에 당첨된 거예요. 본가에서 다니고 있어서, 8시까지 학교에 가려면 최소 6시 반에는 일어나야 하는데. 체력도 별로 안 좋은 편인데 저 한 학기 동안 어떻게 다니죠? 침대에서 등을 떼고 집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게 너무 불행합니다.

A So~ 천국! 저도 참 바라 마지않는 생활입니다.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한량처럼 사는 삶이라니. 상상만으로도 벌써 행복해지네요. 근데 혹시 님 부모님 건물주?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바이오리듬을 바꾸려 최선을 다해야겠네요. 비극적이게도 인간사엔 유구하게 내려오는 진리가 있거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저도 한 저질 체력해서 자체 휴강도 많이 하고, 자체 공강인 날도 많이 만들고 그랬는데요. 그 업보는 다 돌아오더라고요. 야구 타율과 다를 바 없는 학점을 받아 들었을 땐 그러려니 했지만… 취준을 앞둔 지금은 정말로 막막합니다. 해놓은 것 없이 수능마저 끝나고, 배치표를 앞에 둔 고3의 심정이라면 이해가 될까요?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스펙=취업'은 아니지만, 노력이라도 해봤다면 이렇게 절망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 님은 다 못 하겠다면, 출석이라도 꼬박꼬박 하세요. C라도 받아야죠…. 체력이 너무 바닥이라면 딱 학교만 갔다가 바로 돌아와요. 근데 이래 놓고 학기 시작하면, 술 약속 밥 약속 잡느라 기운 없다고 하는 거 아니죠? 네?

교수님이 **유튜버라면?**

수강 신청은 구독으로

수강 신청하러 새벽에 PC방 갈 필요 없다. 구독 버튼만 누르면 인원 제한 없이 듣고 싶은 수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으니까. 구독 신청한 강의는 언제든 다시 볼 수 있으니 마음도 편하다.

출첵 1빠입니다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수업을 진행.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에 댓글을 남기는 방법으로 출첵한다. 밥을 먹거나 누워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개꿀. 대출도 넘나 쉬워져서 출튀 천국이 도래한다.

여러분~ 팔로 팔로 미~

강의가 유튜브를 통해 누구에게나 공개되기 때문에, 재밌는 교수님들은 스타가 되기도 한다. 구독자, 조회 수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므로, 신박한 교수법 연구와 구독자와의 소통은 필수!

2:25 / 5:47

수강신청을 망한 내가 상상해본 건 … 굳이 통학할 필요도 없고, 시험장에 지각한다고 시험 못 볼 일도 없는 방콕 캠퍼스!
만약 교수님이 유튜버라면? 밥 먹거나 누워서도 수업 들을 수 있겠지?

EDITOR 정다운 **DIRECTOR** 김슬 **ILLUSTRATOR** 몽미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조교란

조교들에겐 새로운 지옥이 열린다. 라이브 방송 시 출석 체크와 이후 영상 편집, 업로드, 클린 댓글 창 만들기, 악플로 인한 교수님 멘탈 케어까지 해야 한다. 알파고도 도망칠 업무 강도 인 듯?

교수님의 광역 어그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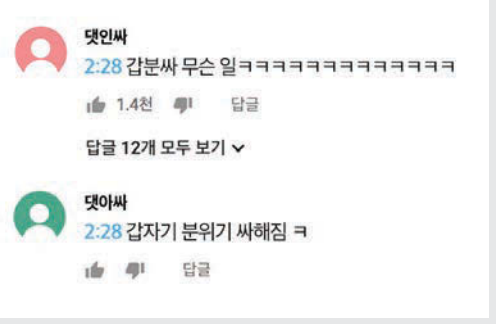
자극적인 섬네일과 타이틀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해야 한다. 섬네일에는 '실화?' '대박' '미쳤다' 등의 단어가 크게 강조되고, 강의 제목은 과장이 심해져서 허언증 갤러리에 박제 당하기도 한다.

댓인싸와 댓인싸

오프라인 강의에선 엄숙하게 앉아 있던 학생들이 댓글 창에서 드립력을 뽐내기 시작한다. 이 중에서도 늘 '좋아요'와 대댓글이 많이 달리는 댓인싸와,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는 댓아싸가 등장한다^_ㅠ

마음껏 보고 치는 시험

시험 역시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며, 제한 시간 안에 교수님의 메일로 답안을 제출한다. 오픈북을 넘어 오픈웹 시험이지만, 우린 경험으로 알고 있지. 그렇다고 잘 보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바 생활 눈치게임

카밍시그널

EDITOR 홍문영 DIRECTOR 김솔 ILLUSTRATOR 몽미꾸

카밍 시그널이란?

Calming Signal

반려견이 사람에게 보내는 몸짓 언어입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의 알바 사장님들도 표정과 행동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죠. 이 시그널을 빨리 눈치챌수록
사장님의 문제 행동에 센스 있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짚어보죠.

03

고개를 기울인다

Tilting Head

사장님이 포스를 쳐다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나요? 재고가 안 맞거나 정산이 안 맞거나, 어쨌든 뭔가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근무 중 계산 실수를 한 적이 없는지 빠르게 되짚어보고, 있다면 빠르게 자진납세 하세요. 무탈한 알바 생활을 위해선 사장님과의 신뢰 형성이 최우선이니까요.

04

빙글빙글 돈다

Circling

초조해하며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도는 행동은, 다음 타임 알바생이 펑크를 냈거나 지각할 거라는 신호입니다. 이때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해요. 약속하지 않은 연장근무를 부탁한다면 단호하게 블로킹! 사장님이 어떤 반응을 보여도 뒷걸음질 치면 안 됩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선약이 있다고 알리세요.

01

하품을 한다

Yawning

입을 쩍 벌리고 하품을 하는 것은 가게에 손님이 없을 때 나오는 행동이죠. 하품 후엔 자연스럽게 입맛을 다시죠? '장사도 안 되고 지루해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소 사나워질 수 있어요. 딴짓을 하고 있었다면 즉시 멈추고 일하는 척하세요.

02

냄새를 맡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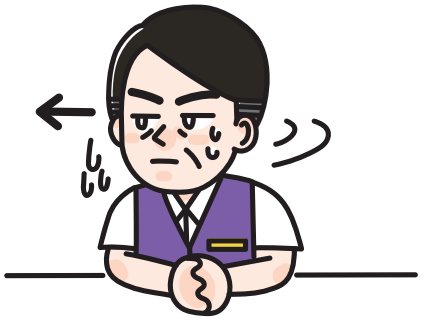
Sniffing

주변을 둘러보며 킁킁거린다는 건 가게 안에 유쾌하지 않은 냄새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알바생을 쳐다보네요. 간단한 의미죠. "저 냄새 빨리 해결해라." 눈치 못 채고 멍하니 서 있다가는 폭풍 잔소리를 듣게 될 테니, 코를 벌름거리는 순간 대걸레를 찾아 떠나세요.

05

눈을 피하거나 **고개**를 돌린다

Turning Away



사장님이 눈을 피하거나 눈이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돌려버린다고요? 임금 체불의 낌새가 느껴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럴 땐 평소보다 더 지긋이 사장님과 아이 콘택트를 하며, 다음 달에 돈 들어갈 일들을 또박또박 읊어주세요. 개들, 아니 사장님들도 그렇게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세상에는
나쁜 개 같은 사장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장님의 시그널을 잘 파악하고 빠르게 대처한다면
평화로운 알바 생활이 될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사장님**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관할 지역 노동청에 도움을 구하세요!

떠먹여주는 리빙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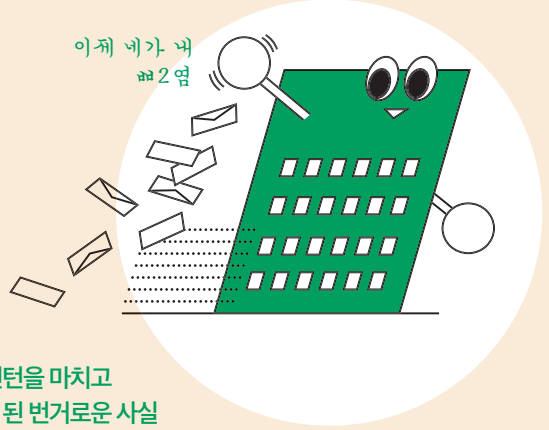
자취생인데 건강보험료를 다 내고 있다면?

만일 당신이 1) 부모님 집에서 독립한 자취생이고 2) 주소지를 옮겨 다달이 내 이름으로 나오는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결론부터 말한다. 그 돈 다 안 내도 된다! 자취방 월세에 매달 공과금 내는 것도 버거운데,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 있었다니 웬 꿀팁? 이게 다 한번에 건강보험료 50만원을 낼 뻔한 자가 일주일간 멘탈 탈탈 털리며 얻어낸 팁이다. 이것만 읽어두면 당신의 인생에서 최소 3시간은(!) 아끼는 셈이다. 생돈은 물론이고!

INTERN EDITOR 현요아 yoa@univ.me **ILLUSTRATOR** 남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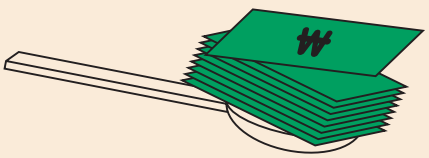
❶ 내가 뭘 잘못했다고 갑자기 50만원을…?

몇 달 전, 생애 첫 인턴 생활을 무사히 마친 내게 날아온 것은 건강보험료① 50만원!! 처음 보는 고지서도 멘붕인데 3개월 간 미납되었다는 큰 액수에 '갑자기 왜 이런 게?'부터 '이걸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까지 멘탈이 탈탈 털리는 기분이었다. 인터넷에 검색하니 백만원 넘게 내야 하는 사람도 등장하고…. '그럼 난 적게 내는 건가? 그런 건가?' 싶어 폭풍 검색과 고객센터 통화를 거쳐 이 고지서의 정체를 파헤쳐보았다.



❷ 인턴을 마치고 알게 된 번거로운 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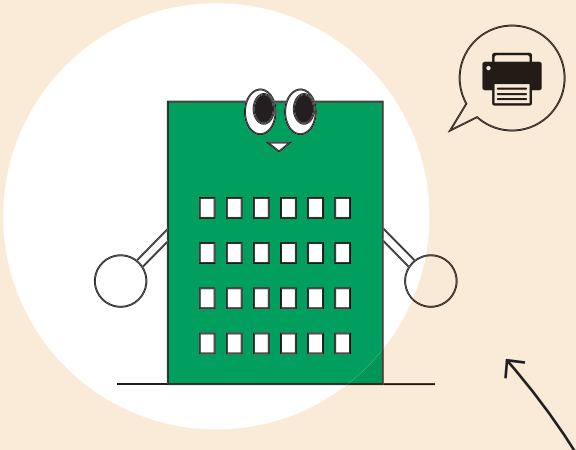
정체는 간단했다. 인턴이 끝난 후 자연스레 서울의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제출하라는 고지서가 날아온 것! 인턴할 땐 월급에서 빠져 나가고 있었고(회사가 절반 부담), 그전엔 발빠른 부모님이 이미 추가발급증②을 제출해 보험료를 함께 부담하고 있어 몰랐다. 만약 당신이 주소지를 옮긴 미혼의 재(휴)학생이라면, 추가증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다음 단계로! (이미 낸 보험료가 있다면 1577-1000으로 전화해 환급받을 수도 있다.)



SPOON TIP

①
건강보험료란?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들이고, 지역가입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나 주민을 뜻한다. 대학생들은 주로 직장/지역가입자인 부모님이 내주고 있기 때문에 궁금할 일이 없었겠지. 하지만 만약 본가에서 독립 후 주소지를 옮겨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되면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이 금액엔 자취방의 전월세보증금이 산정되어 나온다. 억울하다! 우리는 소득이 없는 학생인데!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추가발급증'이다.

②
추가발급증이란?
학업으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자취하는 이들에게 보험료를 가족과 함께 내도록 도와주는 신청서다. '추가증'이라는 단어 역시, 내가 지금 학생이라는 서류를 '한 장 더' 내야 한다는 뜻(물론 한 장이 아니지만^^). 추가증은 휴학생도 신청 가능하며, 휴학생은 자취하는 곳이 학교 근처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해당한다면 얼른 신청하자. 하지만 대학생이라고 모두 추가증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닌데, 평생교육원이나 전산원,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은 불가하다.



❺ 자, 이제 이 모든 서류를 무사히 보내면 끝!

모든 서류를 발급받았다면, 이제 이 네 장의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무사히 보내면 끝이다. 서류가 중간에 사라질까 싶은 걱정이들은 주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찾아가 제출하고(*오후 6시 전에!) 귀찮이들은 팩스로! 팩스는 몇몇 주민센터에도 있지만, 요즘엔 어플로도 전송할 수 있다. 팩스를 잘 보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팩스를 보낸 시간과 자신의 팩스 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생돈으로 날릴 뻔한 **건강보험료 챙기는 법** (Feat. 자취생)

❹ 나머지 서류들은 손쉽게 발급받자

첫 관문을 통과했다면 나머지 관문은 쉽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재학(휴학)증명서'를 내면 끝! 앞의 서류들은 굳이 주민센터를 갈 필요 없이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다 발급받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재학증명서는 '민원 24'에서 신청 후 주민센터로 가야 한다고…. 그래도 학교까지 안 가는 게 어디야…. 재학증명서는 학교에서 수락해야 하니 시간이 좀 걸린다.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오더라도 놀라지 말자. 본인이 서류를 신청한 게 맞는지 확인 차 전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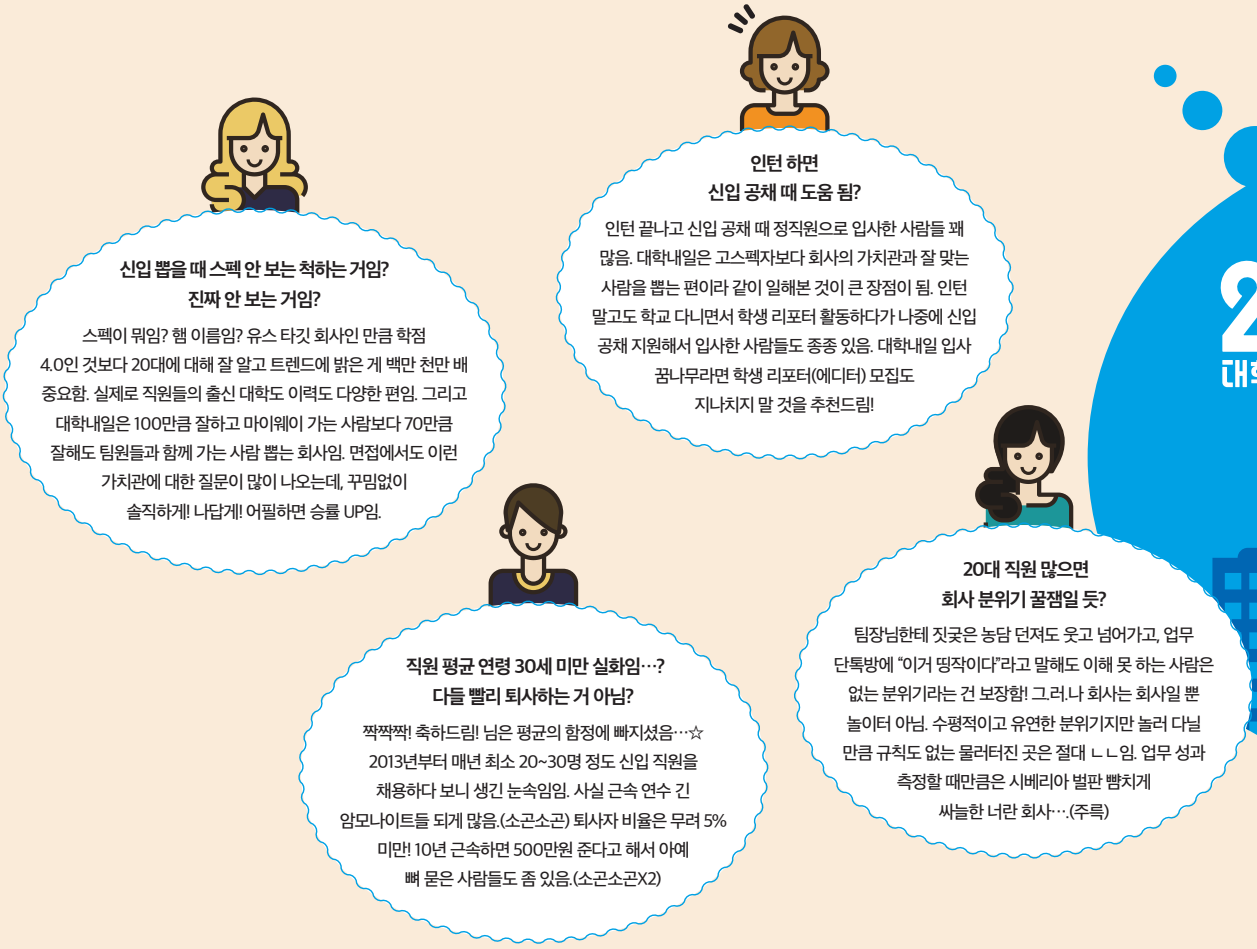
❸ 그래서 추가발급증이 뭐라고? 어디서 받는다고?

그러나 추가증은 꼭꼭 숨어 있는 게 함정….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고객센터에 상담해도 알아듣기 어려운 용어만 나오니, 그냥 따라하자.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건강보험 추가증'을 검색 후 글자 사이에 밑줄로 숨어 있는 <건강보험증 신청서>를 클릭, 내용을 채우면 된다. 추가증은 학업으로 인해 자취 중인 대학생이라면 언제든지, 휴학생이라면 휴학 신청 후 1년까지 낼 수 있다. 대학원생도 석사과정을 아직 수료하지 않았다면 가능하다.

대학내일 다니는 썰.ssul

취준생님들! 꼭 대기업에만 취업하란 법 있나요? 이번 학기엔 잘 나가는 강소기업과 꿀복지로 무장한 스타트업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타자는 콘텐츠 회사로 알려져 있지만 마케팅 대행업 규모가 훨씬 큰 회사! 20대를 잘 아는 회사! 카오나 네0버 못지않게 복지 파티 장난 아닌 회사! 바로 대학내일입니다!(뻔뻔) 다녀 보니까 뭐, 다닐만 하길래 썰 좀 풀어 볼게요!(훗…) 시말서 쓸 각오로 대표님한테 잡0래닛 악플도 읽어 드렸으니까 꼭 보세요! 제발!(다음 주엔 잘려서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음슴체로 쓰겠음)

EDITOR 서재경 suhjk@univ.me



알아두면 쓸데 있는 회사 정보

꿀복지

안식월
3년 근속 시 1달 유급 휴가를 줌!
I SAY 안식~ YOU SAY 월!

서프라이즈 간식 파티
회사에서 수시로 간식 파티 열어줌! 분식 트럭, 치맥, 딸기, 케이크 파티 등 회사 오면 살찜ㅋ

동호회 지원
아이돌 연구부터 사시미 먹방까지 별별 동호회 다 있음! 직원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업무 소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본부 댕댈에서 제일 규모가 큰 부서임! 기업이 원하는 타깃 마케팅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을 기획하고 제안함.

채용 마케팅 본부 채용 시즌 제일 바쁜 부서! 기업이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기업을 도와 캠퍼스 리쿠르팅부터 면접까지 해당 기업의 채용 전 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함.

콘텐츠 팀 「대학내일」 잡지를 만들고, 영상,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함. 기업의 의뢰를 받아 브랜디드 콘텐츠를 만드는 일도 함.

대표피셜! FACT CHECK :

Q 잡0래닛 보니 야근이 잦다는 평이 있던데? 업무에 따라 불가피한 야근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6월부터 주당 40시간 초과 근무 시 30분 단위로 대체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Q 대학내일 인턴은 정규직 전환형이 아닌데?** 대학생들의 직무 경험을 돕기 위해 인턴을 일정 규모 채용하는 편인데, 전원을 전환형으로 선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신 인턴 출신들이 신입 공채를 통해 여럿 선발되고 있다. **Q 잡지 에디터가 되고 싶은데 신입 채용 계획 있는지?** 잡지를 비롯한 미디어 비즈니스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채용 규모가 크진 않을 것. 그러나 기업이 의뢰한 SNS 콘텐츠 제작, 채널 운영 대행 등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쪽에선 콘텐츠 창작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분야 신입 채용은 늘어날 예정이다. **Q 대학내일이 원하는 신입은?** 구성원과 함께하는 태도와 열정이 중요하다. **Q 대학내일 자랑 한 마디** 회사가 성장한 만큼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부터 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까지! 구성원으로서 주인 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단, 책임과 의무에 대한 평가도 엄격하게 시행한다.

"20대 잘알들이 모인 마케팅& 콘텐츠 회사

동종 업계랑 비교해서 연봉이 높은 편이라던데, 참 트루?

입사 1년 차 땐 은행 들어간 친구보다 많이 벌어서 술 산 적 있는 사람임! 근데 요즘은 걔가 더 많이 버는 건 함정….(숙연) 그래도 취미 생활 하면서 연 1회 해외여행 갈 수 있는 여유 정도는 있음ㅋ 대학내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인 마케팅(광고) 대행업 기준으로 동종 업계와 비교해보면, 연봉은 대기업 계열 대행사와 중소 대행사 중간 수준임. 아! 중소기업은 세금 혜택 있는 거 앎? 그래서 세후 기준 초봉은 대기업 부럽지 않음.(올~ㅋ)

워라밸은 괜춘함?

※경고※ 업무량 적지 않음. 마케팅 팀은 대행업 특성상 제안서 작성, 행사 준비, 행사 운영하느라 주말 출근 종종 함. 콘텐츠 팀은 기사 쓰고, 디지털 콘텐츠 만들고, 브랜디드 콘텐츠 뽑아내느라 야근 종종 함. 대신 일한 만큼 대체 휴가 신청하면 됨! 일 너무 많이 해서 현기증 날 땐 대체 휴가 쓰고 훌훌 떠남. 눈치 주는 사람 1도 없음.

회사에서 '맘에 안 든다' 싶은 거 있음?

그거 앎? 대학내일은 처음에 2명이(a.k.a 공동 대표님) 창업해서 직원 수 300명 된 회사임! 내년이면 설립 20주년인데, 매년 감수분열 하듯 직원 수 쭉쭉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회사 규모는 계속 커지는 반면 의사결정 과정은 여전히 옛날과 같음ㅠ 구성원 의견 다~들어보고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 하는 시스템인데 가끔 답답할 때 있음. 회사 규모에 맞는 의견 취합과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봄.

다른 회사랑 비교했을 때 좋은 건 뭐임?

일단 꼰대 청정 지역임. 혹시 꼰대가 있으면 "꼰대시네요?"라며 놀리면 됨. 꼰대들 앞에서 분위기 맞춰야 하는 회식 문화도 없음. 회식 땐 못 가본 맛집 가서 비싼 밥 먹고 쿨하게 세이 굿바이 하면 끝임. 카0오, 네0버 형들만 있을 것 같은 大만족 복지 제도도 많음! 그래서 반도의 평범한 직장인답게 퇴사 욕구 솟구치다가도 결국엔 '걍 다니자'고 결론 내리게 됨ㅋ

대표이사 임기는 우리가 정함!

대표이사는 3년마다 직원들의 비밀투표로 선임됨. 대표이사의 급여도 팀장 회의에서 결정함!

연남동 아님! 원남동에 있음

회사가 서울시 종로구 골짜기 어드메(?)에 위치한 원남동이라는 동네에 있음. 입사 전엔 아무도 몰랐던 동네….

창문 열면 궁궐 뷰가 펼쳐짐~

바로 옆에 창덕궁, 창경궁, 종묘가 있어 궁 뷰(view)를 즐기며 일할 수 있음.

지하철 타면 지각할 수 있음 ^^;

혜화역과 종로5가역 사이 애매한 곳에 위치함. 지하철 출퇴근은 불편함. (버스 정류장은 코앞에 있음)

인트라넷에서 훈훈함이 오고 감

인트라넷에서 고마운 동료에게 '마카롱'을 줄 수 있음. 많이 받으면 상 줌! (※ 먹는 마카롱 아님 주의!)

사공 많은
고민 상담소

연라밸이 안 맞아요

EDITOR 김혜원 hyewon@univ.me

안녕하세요. 대학교 막 학기를 앞둔 4학년 취준생입니다. 요즘 연애와 라이프의 밸런스(a.k.a. 연라밸)를 맞추기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1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요. 평일에는 둘 다 학업, 아르바이트로 바빠서 주로 주말에 데이트를 해요. 문제는 주말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2주에 한 번만 만나자고 하거나 이번 주말에는 혼자 보내고 싶으니 평일 저녁에만 보자고 하면 서운해할 것 같고요. 연애보다 내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밸런스를 맞추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연애 부적격 대상자인 걸까요? - G군, 24세

내 시간이 없는 것 vs 여자친구를 잃는 것

질문자님도 이미 알고 있듯이 현재의 연애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사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년간 매주 주말 데이트를 해왔다면, 주말을 함께 보내는 게 두 사람 사이의 암묵적인 룰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상대가 서운해하는 게 자연스럽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 시간이 없는 것 vs 여자친구를 잃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들은 일과 삶의 균형(a.k.a. 워라밸)이 안 맞으면 이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연라밸이 안 맞는다고 생각되신다면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좋겠죠. 그런데 자기 시간이 중요한 사람과 사귀면 마냥 행복할까요? 어쩌면 주말을 함께 보내며 시간을 공유하던 때가 그리워질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소중한 건 잃어봐야 알게 되니까요.

- 단호박 늙은이, 31세

괜한 싸움을 만들기 싫은 거 아닌가요?

주말을 혼자 보내고 싶다고 했을 때, 상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질문자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아마 좋지 않은 반응이 예상되기 때문에 말을 못 꺼내고 계신 거겠죠. 어차피 말해도 해결되지 않을 일 괜히 싸움을 만들기 싫은 거 아닌가요? 저처럼요. 저도 질문자님과 비슷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한데, 남자친구는 그걸 이해할 수 없대요. 성향이 다른 사람이 만나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좋다면? 참아야죠. 아님 싸울 용기를 내든가.

- 일단은 평화주의자, 31세

외로워봐야 철이 들지

그럼 연애를 하지 말아야지. 자기 생각만 하는 거네. 주중에 서로 바빠서 만날 시간두 부족한데 주말까지 못 만나면 여친이 당연히 섭섭하고 삐지지~. 주말에 만나는 것두 부담스럽고 혼자 지내고 싶음 당분간은 연애를 하지 말아야 할 듯~. 외로워봐야 철이 들지ㅋ.

- 30년째 연애 중인 용띠 누나, 55세

나 자신과 노는 게 제일 재밌는 시기가 있어요

누구에게나 모든 에너지를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싶은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바로 그 시기에 놓여 있는데요. PT와 일본어를 새로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돈과 시간,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애인과 데이트하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로요. PT 선생님께 그 말을 하니 웃으며 자기도 그런 적이 있었다며, 그런 시기는 자주 오지 않으니 지금을 열심히 즐기라고 하셨어요. 저는 결국 애인과 헤어졌어요. 원래 외로움이 많아서 늘 애인을 필요로 했는데, 지금은 연애보다 나 자신과 노는 게 제일 재밌어요. 지금 여자 친구를 놓치면 그녀를 영원히 잃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질문자님께 찾아온 홀로됨의 시간 역시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질문자님은 연애가 버거운 상태가 아닐까요? 여자친구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고, 안 되면 솔로의 세계로 오십시오! 생각보다 멋지고 너무 재밌답니다!

- 멋진 솔로, 28세

대화하세요. 연애는 둘이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죠. 이 정도 가지고 뭐 연애 부적격 대상자까지…. 이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여자친구와 대화하세요. 연애는 둘이 하는 겁니다. 혼자 끙끙 싸매고 있어 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요즘 드는 생각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고, 합의점을 찾아보세요. 아마 말을 안 하고 숨겨봤자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질문자님의 표정에서, 말투에서 은연중에 '혼자 있고 싶다'는 욕구가 드러날 겁니다. "너 변했어."라는 말을 들은 후에 변명을 하는 것보단, 문제가 커지기 전에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나요?

- 만사 귀찮은 염세주의자, 29세

고민이 있으시다고요? 어차피 어디에도 뾰족한 해결책은 없고,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들어보고 싶다고요? '사공 많은 고민 상담소'(hyewon@univ.me)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나이도 직업도 다양한 여러 명의 사공들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립니다. 일명, "네가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몰라서 이것저것 차려 봤어!"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

부모와 감정을 교류하는 대화를 할 수 없어서 힘들단 사람이 있었어. 예를 들어 부모에게 "집 앞에 새로 연 빵집 좋던데요" 같은 말을 하면 "어떤 빵이 제일 맛있어?" "나도 가봐야겠네" 같은 말이 아니라 "근데 그 집 여자 성형한 티가 너무 나더라" "네 입에 안 맛있는 게 어디 있겠니" 같은 식의 험담이 무조건 이어진대. 어떤 말을 꺼내더라도 험담과 비난, 질타, 무시로 이어진다는 거야.

그 사람의 진짜 고민은 이거였어. 집에서 그런 식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익숙해지다 보니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말하는 법을 모르겠다는 거야.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아가는 법을 모르니까 남들과 있을 땐 자꾸 입을 다물게 된다는 거지. 말을 꺼낼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부모님 말투가 튀어나온대. 그때마다 분위기가 싸해지는 걸 경험했기에 아예 말하지 않는 걸 택한 건데, 이 때문에 주변에 오해를 사고 있다고 했어.

다른 사람들은 말하는 걸 나처럼 어려워하지도 않는 것 같고,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법한 말도 잘 꺼내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힘든 걸까?

그 이야길 듣고 마음이 아프더라. 왜냐하면 나도 예전에 그랬거든. 어릴 때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면 항상 도망쳤어.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상대를 설득하거나 갈등 상황이 풀릴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했던 거지. 사람들은 직접 본 것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믿으니까. 내가 알고 있던 대화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한쪽은 듣는 거였어. 커가며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자 고민이 되더라. 다른 사람들은 말하는 걸 나처럼 어려워하지도 않는 것 같고,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법한 말도 잘 꺼내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힘든 걸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고 싶었어. 특히 사람들과 친해지려면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하는지 알고 싶었어. 그래서 말을 잘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호감을 주면서도 남을 잘 설득하는 사람들을 많이 관찰했어. 그렇게 열심히 본 뒤에는 대본 쓰듯 할 말들을 적어서 외우기도 했지.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말하는 게 무섭지 않게 됐어. 말을 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떠다니던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물음표도 거의 사라졌고.

나와 비슷한 고민을 했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방법들이 있어. 제일 중요한 건, 내 의견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마음을 줄여야 한다는 거야.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말해봤자 상대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단정하는 데서 오거든. 친구들과는 수다스럽던 사람이 부모 앞에서는 말을 잘 하지 않는 것처럼. 이건 경험에서 오는 확신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지레짐작하고 언제나 그랬듯 이번에도 내 의사는 중요하지 않을 거라 느끼는 게 습관이 돼버리면 입을 다물게 될 일만 남는 것 같아. 물론 누군가에게는 내 의견이 중요치 않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내 말을 듣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야. 이 당연한 생각을 오랫동안 못 했어.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사실은 다 속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거란 가정을 버려야 한다는 거야. 부정적인 이야기가 평소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면, 점점 다른 사람들이 하는 평범한 말조차 위선처럼 들리게 돼. 그러면 사람들이 가식적이라는 생각에 "솔직히 말해서 말이야… " 하면서 수위 넘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아. 현실의 사람들은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처럼 말하지 않아. 그걸 잊으면 사람들이 뒤에서 다들 남을 욕하고 있고, 위선을 떨고 있다고 느끼게 돼. 솔직하게 말하겠단 생각으로 수위 높은 비난을 하고 싶어질 때 속으로 '잠시 멈춤'을 눌러야 해.

마지막으로, 대화란 서로 공을 주고받듯 반응을 나누는 상호작용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해 혼자 주절주절 마이크를 잡고 놓지 않아. 그런데 말의 분량이 중요한 게 아냐. 상대의 반응을 보며 감정을 공유하는 게 핵심이지. 여기 익숙해지면 표정변화 같은 비언어적 표현도 곧바로 포착할 수 있게 돼.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꼭 상대를 원망해. "그때 왜 싫다고 정확히 말하지 않았어?"하면서. 또 정보의 양은 친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해야 하는데, 빨리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에 몇 번 보지 않은 사이임에도 자기의 큰 약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그건 상대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 진심이라고 해서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 그건 상대를 고려하지 않은 선물처럼 난감하거든.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이해받는 일은, 의지할 곳 없는 이 세상에서 영혼을 치유 받는 정말 멋진 경험이야. 말하는 게 부담되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면 좋겠어. 이건 나를 표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사람과 깊이 교류하게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니까. 신을 믿는 것만이 구원은 아니야. 내 상태를 솔직히 말해도 비난받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드는 사람이 인생에서 딱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어.

WRITER 정문정 anne.jeong@daum.net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을 썼습니다
ILLUSTRATOR 강한

#대학생만을 #위한 #금주의 #꿀정보

EDITOR 유영민 ymplay@univ.me

방송문화진흥회, MBC플러스

2018 K-크리에이터 대전

http://www.produkhu.com/

방송문화진흥회와 MBC플러스에서 2018 K-크리에이터 대전을 개최하고 있어. 작품 형식은 자유 형식이며 K-POP, K-Beauty, K-Food, K-Travel의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돼. 대상에게는 상금 700만원이 주어지고 수상자에게 MBC플러스 인턴 기회가 주어진대. 10월 5일까지 접수 가능하니 관심 있는 친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

응모 기간
~ 2018년 10월 5일(금) 마감

응모 자격
16~26세 남녀 개인 또는 단체

시상 내역
총 상금 2,600만원
대상(1팀) 700만원,
우수상(2팀) 400만원,
장려상(4팀) 200만원,
인기상(3팀) 100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조이올팍 페스티벌

www.jof.co.kr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가을 바캉스 <조이올팍 페스티벌>이 9월 15일, 16일 이틀 동안 올림픽공원 잔디마당에서 개최된대. 각박한 현실을 잠시 잊고 반짝이는 일상을 만끽하기 위한 페스티벌로 다이나믹듀오, 케이윌, 멜로망스, 자이언티 등 우리를 힐링시켜줄 아티스트가 한자리에 모인대. 가을의 여유를 느끼고 싶다면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예매해봐.

공연 기간 2018년 9월 15일(토) ~ 2018년 9월 16일(일)
공연 장소 올림픽 공원 잔디마당

극단비유, 열린극장

뮤지컬 <메리골드>

www.ticketlink.co.kr

뮤지컬 <메리골드>가 9월 30일까지 대학로 열린극장에서 공연한대. 불행한 가정환경, 집단 따돌림 등 인생의 큰 상처를 지닌 인물들의 치유 과정을 담은 뮤지컬이야. 관객들도 함께 치유 받는 '소확행 뮤지컬'로 유명해. 지금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싶다면,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예매해봐.

전시 기간 ~ 2018년 9월 30일(일)
전시 장소 대학로 열린극장

HR

더 많은 정보를 원한다면: 아웃캠퍼스 cafe.naver.com/outcampus

기업명	직무	홈페이지	지원 마감	기타
㈜아프리카티비	고객지원, 야간 모니터링, 모바일 앱 개발, 방송플랫폼 개발, 광고영업, 대외협력 등	recruit.afreecatv.com	~ 8.26	2018년 아프리카TV 하반기 특별 채용
㈜리치몬트코리아	몽블랑 백화점 판매사원	richemont.com	~ 8.26	몽블랑 백화점 및 면세점 판매사원 모집

공모전

주최	공모전명	분야	지원 마감	상금
환경재단, 한국대기환경학회, 환경부	미세먼지 해결 돕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광고, 아이디어	~ 8.24	수상자 "온누리상품권" 지급 (총 6명, 총 상금 150만원) 50만원권 (1명), 20만원권 (5명)
한국잡지협회	제11회 전 국민 잡지 읽기 공모전	수필, 영상 등	~ 8.31	대상(1인) 300만원, 최우수상(1인) 200만원, 특별상(2인) 100만원, 우수상(7인) 50만원, 장려상(10인) 30만원
쥬씨	쥬씨 영상 아이디어 공모전	영상	~ 9.9	대상(1팀) 100만원, 최우수상(1팀) 50만원, 우수상(1팀) 상금 30만원, 아차상(7팀) 쥬씨 모바일 쿠폰 10만원권
문화체육관광부	제10회 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 광고 공모전	인쇄, 영상	~ 9.14	대상(공통 1명) 500만원, 최우수(분야별 1명/팀) 300만원, 우수상(분야별 2명/팀) 100만원, 장려상(분야별 4명/팀) 50만원
방송문화진흥회, MBC플러스	2018 K-크리에이터 대전	영상 광고	~ 10.5	대상(1팀) 700만원, 우수(2팀) 400만원, 장려(4팀) 200만원, 인기상(3팀) 100만원
아모제푸드㈜	제16회 아모제푸드 외식 아이디어 공모전	광고, 아이디어	~ 10.7	대상(공통 1팀) 300만원, 우수상(분야별 1팀) 200만원, 입상(분야별 3팀) 50만원

대외활동

주최	대외활동명	활동 기간	지원 마감	활동 혜택
한국바른체형	한국바른체형 대학생 서포터즈 2기	2개월	~ 8.25	입사 시 가산점 제공, 우수 서포터즈 시상, 체형 측정 프로그램 제공
네오팜	더마비안 9기	6개월	~ 8.26	활동비 및 본품 제공, 자사 쇼핑몰 적립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 (사)한국광고총연합회	2018 한국광고아카데미 2기	6개월	~ 8.27	우수 수료생 장학금 지원, 국제 광고제 출품 지원, 광고회사 실무 프로젝트 기회
이니스프리	이니스프리 대학생 마케터 그린어스	5개월	~ 8.27	우수 활동자 이니스프리 인턴십 제공, 매월 활동비 및 최종 우승 팀 상금 지급, 실무진 멘토링 및 마케팅 전문가 교육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제10기 두루누리 블로그 기자단	1년	~ 8.31	원고료 지급, 기자단 수료증 발급, 방송 통신 정책 관련 행사 참여 기회 제공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대학생 감성 서포터즈 유대감 3기	6개월	~ 9.2	매월 활동비 지급, 최우수 활동 팀 시상, 공식 수료증 수여,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실무 교육

강연 / 이벤트

주최	행사명	홈페이지	일정	장소
가우디움 어소시에이츠, KBS 미디어	모니카와 떠나는 세계명화 여행전	www.ticketlink.co.kr	7.23 ~ 9.26	홍익대학교 대학로 아트센터 갤러리
서울산업진흥원	기업수요 기반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 프로그램	http://sbasncc.tistory.com/843	과정별 상이	교육과정별 상이(홈페이지 참고)

사칭에 속지 마세요

돼학내일 퇴학내일 대학레일 대함내일 대할내일 대핟내일
더학 내일 대학내일 매학내일 대한내일 대학네일
대학내인 뎨학내일 대악내일 대학냄일
뎌학내일
대학내일 대학내이 대확내일 데학내일
대학내힐 대학내윌 대학내일
대학내힗 대학래일 대학네일 대핡내일 대학내일

대학내일 사칭이 의심되면 꼭 확인하세요!

대학내일과 대학내일 기자, 리포터, 직원을 사칭해 대학생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할 때 미심쩍은 생각이 들면, 대표전화(02-735-3800)로 연락하여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리포터나 기자, 에디터라며 인터뷰를 요청해 취재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
- 전화나 메일, 메신저 등으로 대학내일이라며 접근해서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는 경우
- 명함이 없다고 하거나 본인의 이름과 직함, 소속팀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
- 종교 활동이나 불법 상행위 같은 대학내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대학내일로 보기에 미심쩍은 활동이나 언행을 하는 경우

최근 몇 달간, 제보를 통해 사칭하는 분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확보했습니다. 친숙한 대학내일의 이름을 빌려 대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대학내일 표지모델 신청 방법!
covermodel@univ.me로
연락처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사진을 보내주세요!

◇◇◇

필요한 사진은?
전신 사진과 얼굴 사진을
비롯해 자신의 개성을
뽐낼 수 있는 사진 얼마든지!

◇◇◇

어떤 일을 하는지?
① 대학내일 표지와 내지를
장식하는 촬영 진행
② 짧은 인터뷰

대학생이라면,
대학내일의
커버모델에
도전하세요!

20 대학내일

×

Find Cover Model

CJ CHEILJEDANG

밥보다 더 맛있는 밥-

햇반® 컵반

햇반컵반은 '컵'에 담은
가정식 '반(飯)'상을 의미합니다